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방안 연구 - 이중언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분야 취업을 중심으로 -

안일선\*

**요약**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이들의 배경 자질인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은 어느 정도의 양적, 질적 성과를 가져왔으나 많은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언어 활용 전문직인 이중언어 교사 등 4개 전문직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는 한편 최근 성장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를 활용한 분야를 제시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이중언어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마케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의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취업지원 정책, 이중언어 활용, 전자상거래

## 1. 들어가기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배경 자질인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함이 유망하다고 보고 기존에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한 취업 분야를 살펴보고 새로운 취업 분야를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처한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그들의 자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기존의 취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한국 내 여성결혼이민자는 1980년대 특정 종교에서 추진한 국제결혼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1990년대에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규모가 급격히 커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국 내 결혼 10쌍 중에 1건은 외국인과의 결혼일 정도로 국제결혼의 비중이 커졌으며(연합뉴스 2020.03.19) 그중 여성결혼이민자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의 81.1%로서 국내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여성결혼이민자임을 알 수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체류 상황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비하여 열악하고 언어 소통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는 최근 들어 전체 출생아 100명 중의 6명(한겨레 2021.11.08)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나 이들 자녀의 교육 문제 역시 여러 문제

1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지표)에 게시된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021년도 11월 말 기준 16만 8천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중 여성결혼이민자는 전체 결혼이민자의 81.1%에 해당하는 13만 6천여 명이였다(법무부 2021: 32).

2 여성가족부(2019: 182)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26.3%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외로움' 25.9%, '언어 문제' 24.1% 등의 순이었다.

점을 안고 있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활동, 즉 취업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내 체류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능력을 키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사회화가 진행되어 한국 사회 정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취업한다 해도 대체로 한국인보다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서 유리한 취업 조건의 모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질인 이중언어 능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한 취업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중언어강사, 통·번역사, 국제관광통역사,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이 대표적으로 전문 직종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종에 대한 취업 지원만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에 좀 더 다양하고 규모가 큰 취업 분야의 개발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한 후 새로운 취업 지원 분야로서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의 선정은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여성결혼이민자가 갖는 기본적인 다문화 감수성과 이중언어 능력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 논하는 주요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배경 자질로서의 이중언어의 활용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네트워크 활용방안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로서 이중언어를 활용한 취업 또는 직업 활동에 관한 연구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원 또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인적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와 관련하여 장인실(2011)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경기도의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다문화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이 고용 창출로 연계되며, 다문화가정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수료생 만족도 평가에서는 수업 지원,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수진 등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황미혜(2017)는 16명의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자립 성공 사례집(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2015)에 수록된 목차를 소개하고 그중에서 6명의 자립 성공자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중언어 사용을 다문화사회 통합주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 분야에 대한 논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윤주(2017)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강사의 역할 수행 실태를 다루었는데 이중언어강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문화 강사나 다른 부차적인 업무를 많이 한다는 것, 이중언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안감, 학교 내 지위 문제, 낮은 보수와 열악한 복무환경 등이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는데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중언어강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또한 가정과 자녀에게 받는 인정받는 것과 지역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중언어강사로 긍정적인 가치가 높게 가지고 있지만, 직업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중언어 활용을 통한 직업 이외에 사회적 자본 또는 자원으로서 자조 그룹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면, 박신영(2016)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조 그룹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통·번역사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자조 그룹의 유형을 ‘기관주도 공식적 자조 그룹’과 ‘개인 주도 비공식적 자조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개인 주도의 비공식적 자조 그룹’이 여성결혼이민자 상호 간에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전달이

나 연락은 ‘개인 주도의 비공식적 자조 그룹’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장남혁(2014: 280)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특정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로 특히 이주자의 삶에서 높은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이주자 공동체가 체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필리핀 현지 구호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주자 공동체를 교량으로 한국의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해외 구호와 개발 사업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이주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금융이나 사업 관련 교육과 훈련 수행을 통해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한 일거리 및 소득 창출에 대한 방법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한 사회 활동 실태에 대한 논의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새로운 분야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배경 자질인 국제적 네트워크의 활용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연구의 수와 논의의 내용이 아직은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1) 이민자 현황 및 취업실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1.17)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1%이며 이는 2006년 발표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라고 발표하였다.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수는 214만 6,748명이며, 유형별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이 169만 5,643명으로 79%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9만 9,128명으로 9.3%, 그리고 외국인 주민 자녀가 25만 1,977명으로 11.7% 이었는데, 외국인 총수는 2019년 발표된 221만 6,612명과 비교해 6만 9,864명 (3.2%)이 감소한 수치로서 2006년 통계 발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하던 외국인 주민 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통계청과 법무부의 공동 보도자료(2020.12.21)에 따르면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는 91만 7천 명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8.9%이며, 외국인 취업자는 84만 8천 명이며, 고용률은 63.7%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임금을 살펴보면,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은 67.5%이고, 200만 원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32.5%이었다. 한편 외국인의 비경제 활동 인구는 41만 4천 명이며, 귀화허가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7천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이민자 언어와 취업과의 관계

법무부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이해 교육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직단계부터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부 장관이 한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외국인 근로자 구직자 선발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sup>3)</sup>하고 있다. 일반 이민자들이 한국 내에서 한국 기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물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전문 직위 분야에서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직무능력과 함께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3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 평가시험 시행,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실시기관 선정이나 선정 취소, 그리고 평가 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3. 여성결혼이민자 이중언어 활용 취업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

#### 1)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취업 실태

##### (1)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법무부(2021)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68,56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136,711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81.1%에 해당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45,8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이 38,197명, 일본 출신이 13,759명, 필리핀 출신이 11,499명, 태국 출신이 6,338명, 캄보디아 출신이 4,031명, 미국 출신이 1,224명이며, 기타 국가 출신이 15,722명이다. 이 통계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가 전체 이민자의 60%를 넘으며, 이 이외에도 일본을 비롯한 필리핀, 태국 등도 3%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국적 구분	총계	중국 (한국계 포함)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캄보 디아	미국	기타
	전체	168,562 100%	59,773 35.5%	22,364	41,737 24.8%	15,030 8.9%	12,024 7.1%	6,457 3.8%	4,570 2.7%	4,516 2.7%
남자	31,851 (18.9%)	13,942	8,411	3,540	1,271	525	119	539	3,182	8,733
여자	136,711 (81.1%)	45,831	13,953	38,197	13,759	11,499	6,338	4,031	1,334	15,722

자료: 법무부(2021: 32).

##### (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실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질적 지표로 삼을 만한 취업 직종과 임금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9) 자료를 토대로 여성결

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3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가 20.2%, 이어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9%, 판매종사자 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2%, 사무종사자 5.1% 순이었다.

표 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종 분포

(단위: %, 명)

직종 유형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합계	
전체	1.5	10.7	6.0	17.0	8.9	4.0	10.2	13.8	27.9	0.04	100	
성별	여성	0.8	8.4	5.1	20.2	9.8	5.1	6.2	13.9	30.6	0.0	100
	남성	4.0	18.9	8.9	5.9	5.7	0.4	24.1	13.4	18.7	0.2	100

자료: 여성가족부(2019: 226-227)의 <표 III-71> 일부 인용.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무 직종 분포 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순 노무 종사자(30.6%)와 서비스 종사자(20.2%)가 전체 여성의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는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8.4%)와 사무직 종사자(5.1%)는 13.5%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를 일반 국민과 비교해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18.5%로서 국민 일반 5.4%에 비해 3배나 많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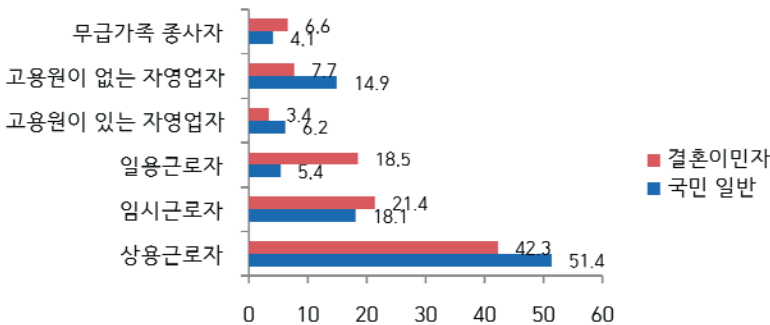


그림 1.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 일반의 종사상 지위

자료: 통계청(2018); 여성가족부(2019: 표 III-56) 재인용.

상용근로자는 42.3%로서 국민 일반 51.4%보다 9.1%나 낮은 수준으로서 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가 국민 일반에 비해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결혼이민자의 종사상 지위 현황, 여성결혼이민자와 국민 일반의 종사상 지위 비교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국민 일반에 비해 열악한 취업환경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3)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임금실태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의 질적 취업실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임금수준이며, 20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인 14.3%,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26.8%,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8.0%,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11.0%,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4%, 300만 원 이상 3.7%였다.

표 3. 결혼이민자·귀화자 임금수준

(단위: %, 명)

임금 유형	임금 또는 보수 없었음	50 만원 미만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450 ~	500 만원 이상	합계
			100 만원 미만	15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25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50 만원 미만	400 만원 미만	450 만원 미만			
전체	6.6	3.8	12.0	22.3	25.3	13.4	6.6	3.5	1.9	1.2	1.0	2.3	100.
성별	여성	8.2	4.6	14.3	26.8	28.0	11.0	3.4	1.4	0.8	0.3	0.9	100
	남성	1.3	1.0	3.9	6.7	15.9	21.9	17.8	11.0	5.9	4.1	3.3	7.2

자료: 여성가족부(2019: 표 Ⅲ-74) 일부 인용.

임금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최저임금(월급 기준 157만 원)(부산일보 2017.12.05) 수준보다 낮은 150만 원 미만이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53.9%나 되어 여성결혼이민자가 받는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다문화가족 월평균 소득을 분석해 보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2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22.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20.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

만(11.5%), 500만 원 이상(10.2%) 순이다(여성가족부 2019). 동 자료 조사 시기 (2018년 8월)와 비슷한 시기의 통계청 보도자료(2018.08.23)의 국내 가구당 월 평균 소득(453만 1천 원)<sup>4</sup>을 비교해 보면, 다문화 가구 월평균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월평균 400만 원 미만 가구가 78.3%나 되어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다문화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 명)

임금 유형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합계
전체	9.7 (29,901)	22.4 (68,781)	26.1 (80,225)	20.1 (61,727)	11.5 (35,232)	5.1 (15,584)	5.1 (15,544)	100.0 (306,995)
누계	9.7	32.1	58.2	78.3	89.3	94.9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9: 표 II-18) 일부 인용.

이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직종이 단순노동자가 많으며, 국민 일반과 비교해서도 취업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수준을 비롯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소득과 우리나라 일반가정의 월평균 소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정주 대상으로서 향후 국민의 하나로 편입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국민의 배우자로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추후 자녀가 태어나면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미래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에 있어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에서 벗어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으로의 직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성희 외(2015: 78)도 단순노무직과 비교해 관리직을 비롯하여 전문직과 사무직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다문화가정이 자신이 보유한 이중언어라는 인적자원을 최대로 발

4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천 원이었다(통계청보도자료 2018. 08.23.).

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통합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 2) 여성결혼이민자 이중언어 능력과 취업과의 관계

### (1) 이중언어 분야 취업지원 교육 및 취업 기회가 높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민자들의 인적자원으로서 이중언어 활용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중언어 강사과정을 비롯하여 통·번역사, 통역관광가이드, 국제 의료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이중언어 교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이중언어 강사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초등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언어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이해 및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강사로 활용<sup>5</sup>하고 있다.

### (2) 국제 분야에 관한 취업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중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최소 두 개의 언어에 관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두 가지 언어권에 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중언어가 가능한 점은 국제간 거래 또는 무역에 있어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영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우대하는 이유는 이들이 한국어와 함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3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양성과정 수료한 이중언어강사를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주 1~2회 영어와 베트남어 등의 언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이해 교육을 시행하였다 (영천뉴스24 2021.07.30.).

### 3)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 및 이중언어 활용 정책

#### (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관련 법과 정책

정부는 2007년 5월 17일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다음 해인 2008년 3월 21일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단위의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기본계획안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에 해당하는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안에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이 담겨있다. '다문화가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1차 다문화가족 정책'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적응 지원내용을,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에는 다문화가정 '사회경제적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직업연계 정책', 그리고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안에는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가족 정책 안에 포함(신영진·이광석 2019: 66)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응을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비롯하여 한국 생활 정보 제공, 가족관계 유지에 필요한 상담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21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 기준 전국에 22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나 자녀 등을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미취업 상태 결혼이민자의 취업 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에 기인하여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소양 교육을 하는 한편 취업 훈련 정보 및 일자리 발굴과 알

선 들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 (3) 여성결혼이민자 이중언어 활용 정책

이민자 언어 활용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의 하나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취업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중언어를 활용하기 위한 취업 유형으로 제공되는 이중언어강사, 통역관광안내사, 통·번역사, 국제 의료코디네이터 과정별 지원 목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이중언어 활용과정 전문직 유형별 지원 목적

전문 직종	지원 목적
이중언어강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어교육, 학교생활 및 교과 학습 등을 지원 다문화가정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
통·번역사	2009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주관으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시작
통역관광안내사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국내외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홍보자원으로 활용
국제 의료코디네이터	기본·전문·직무역량을 갖춘 외국인 국제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

자료: 장인실(2011: 113), 한국보건복지인재원(2020)의 자료를 재편집.

## 4) 이중언어 활용 취업지원 정책의 성과 및 한계

### (1) 이중언어 활용 취업 지원정책의 성과

#### ① 취업지원 교육기관의 확대 및 교육 인원 다수 배출

여성가족부에서 취업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6년 21개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2020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걸쳐 228개로 확대하고 동 기관을 통해 한국의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시행하고, 일자리 발굴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2020년 기준 연인원 19,433명의 참가자에게 제공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② 한국어교육 이용자 다수 배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는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 시행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02.22)<sup>6</sup>이 파악한 지자체 한국어교육 이용자 수는 2016년도 기준으로 연인원 557,182명이었으며,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서 5점 기준 4.45점인 것에 비추어 교육 참가자의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안일선 2022: 590-591).

③ 여성결혼이민자 사회 정착에 도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한국 사회 일원이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통합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중언어 강사 활동을 통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보도자료(대구신문 2020,12,10)를 통해 이중언어 활용에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동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외국인 주민지원 활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활용 사업 중에서 통·번역사 사업을 살펴보면 통·번역사들이 근무하는 곳은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주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특히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이나 취업 생활 등에서 언어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통·번역사 업무는 외국인

---

6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한국어 교육 운영기관 232개소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사업 현장과 평가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운영과 실적관리, 만족도 조사 등 사업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주민 지원 활용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이중언어 활용 취업지원 정책의 한계

### ① 특정한 자격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접근성 문제

이중언어 교육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수준과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중언어 통·번역이라는 것이 두 개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하여야 하며 말하는 데에도 상당한 표현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학력이나 어학 능력이 요구된다. 강재철·박영현(2011: 26)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원어민 강사, 외국어 강사의 경우에는 국적이나 학력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지적은 이중언어 활용 분야 학습자 모집대상을 특정 언어 권역 출신이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중언어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 한정하여 선발하는 것은 소수 언어권에 속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닫혀 있다는 것으로 이것 또한 접근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혜원·김상호 2010: ix). 특정한 자격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학력 분야에서 대졸 이상이 많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중언어 활용에 있어서 고학력이나 한국어 사용에 있어 너무 높은 수준의 어학 능력이 요구되지 않은 일상언어 정도의 의사소통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직무 개발이 필요하며, 소수의 언어권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② 국내 위주 활동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 부족

현재 개설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활용 전문 교육과정은 국내 시장 위주로 하고 또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이 없이 한정된 시장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시장 측면에서 시장 확장성이 없다 보니 한정된 시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교육 수료 이후에 취업으로 연결되

기도 어렵고, 일부 기관에서는 적은 일자리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많다 보니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취업희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순환식이 되어 결국은 비정규직 자리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때도 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이중언어 활용과정이 교육으로 끝나고 교육 수료생 확대로서의 평가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후 교육내용을 활용할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수요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읽고 특히 이중언어라는 측면에서는 해외시장과 연관되므로 해외 시장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는 교육생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그 점만이 국내 시장에 한정되는 협소함을 벗어나 무한한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다.

국내 시장만을 상대로 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해외 진출 즉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기회가 없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 위주의 소비자, 해외에서 의뢰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등을 상대로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자질을 활용하여 국경을 넘어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류열풍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협력사업 논의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활용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활동 무대를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류와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타 부처의 활동과 연계하여 직업과정을 개발한다면,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이중언어 활용에 관해 전문가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여성결혼이민자 이중언어 자원 및 인적 네트워크 활용 부재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활용을 위한 직업들을 보면 기존에 마련된 직업이나 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유한 모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전략이나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국에 거주하는 13만 명이라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살고 있으며,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

어 타국 생활 적응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장남혁 2014: 288) 이는 모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해외송금이나 물건 해외배송 등을 통해 모국의 부모나 형제 또는 자매 더 나아가 친척이나 마을 공동체와도 연결되어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보유한 이중언어 자원과 한국과 출신국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의미가 크다.

####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분야 취업지원 방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대상으로서 전자상거래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개요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주문, 결제, 이행단계 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때 전자상거래가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와 관련하여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였으며, 이는 동 기간 소매유통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4.9%)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2014년 6.5%에 불과했던 소매유통시장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세계 5위이며, 소매유통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8.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

##### 1)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를 취업지원 대상에 선정

앞에서 검토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활용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

은 취업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부에서 유망 가능 직업으로 육성 계획에 포함

정부는 2020년 8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3차 비상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미래 산업·직업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에 최근 새롭게 부상 중인 신직업 14개 분야에 관한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초기 시장 수요 창출 등에 민간 활성화와 시장안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 있는 '커머스 크리에이터' 등 6개 분야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발표하였다(정책뉴스 2020.08.13).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부응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한 업무에 진출한다면 정책적인 예산이나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기회가 된다.

### (2) 이중언어 자원 활용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쟁력 강화

전자상거래에 있어 국내와 별도로 해외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중언어 능력은 업무처리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이중언어 능력은 단순히 영어뿐만 아니라 해외 전자상거래가 영어 사용권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므로 마케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지 소비자에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외 전자상거래 진출을 위해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과정을 통해 직무능력을 갖춘다면 교육훈련 이후 여성결혼이민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업무수행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김학민 외(2019: 14)는 성공적인 전자상거래 무역 창업을 위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71.4%가 '무역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중언어 자원을 보유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직무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전자상거래 무역 창업에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 (3) 시간, 공간적 유연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

전자상거래는 관련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와 직접 창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육아나 가정업무로 인해 경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전자상거래 창업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이규용(2012: 88)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육아 및 자녀 보육 등의 가사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및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재택근무(home-based work) 또는 시간제 형태의 일자리를,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보장된 전일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지윤숙(2013: 37-38)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 (4) 한국상품의 해외판매 채널로 활용

한국 드라마, 한국음악 등으로 시작된 한류를 비롯하여 전 세계를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비롯하여 화장품, 농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문화체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종합 한류 축제인 ‘케이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1.10.25).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판매하려는 한국상품에 관해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판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판매 채널로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 상품 판매자보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어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홍삼에 관해 상품 설명을 할 때, 한국에서 인삼 생산과 홍삼 제조 과정을 견학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홍삼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면 고객에 대한 상품 판매에 있어 구매자의 신뢰감을 높여줄 것이고 이는 판매상품에 대한 구매율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 2)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의 단계적 시행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와 인적 네트워크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 전략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전자상거래 마케팅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 (1) 마케팅 초기 단계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로 한국 상품을 이해한 다음 한국 거주 모국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마케팅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소통 언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되며, 자신이 습득한 상품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또한 소비자로서 부터 피드백을 받고 상품 판매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초기 단계는 마케팅 활용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고객에 발송되는 상품은 국내 택배업체를 통해 상품의 배송이 이루어진다. 상품에 대한 정보 습득과 상품배송에 관한 의사소통 언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지므로 직무에 관한 한국어 수준도 요구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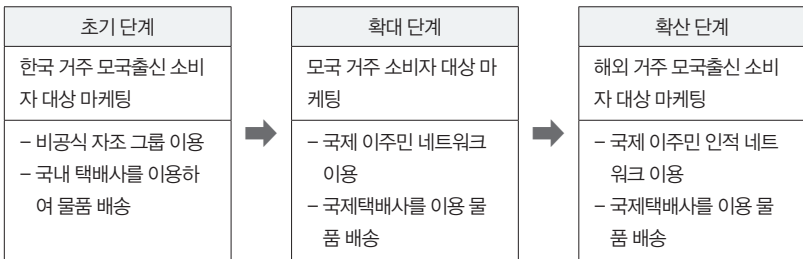
### (2) 마케팅 확대 단계

두 번째 확대 단계는 국내 마케팅 경험을 기반으로 모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행하며, 국제배송을 통해 해외로 발송되는 단계이다. 한국에서 모국으로 발송되는 국제간 물류 유통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외국 배달업체에 대한 송달 품질을 비롯하여 관세 납부와 관련된 통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해외 반품에 대한 절차도 마련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며, 상품 마케팅에 관해서는 이주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하는 전략이 중요시된다.

### (3) 마케팅 확산 단계

마케팅 세 번째 확산 단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이 아닌 제3국으로서의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언어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며, 이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언어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이루어진다. 제3국에 거주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주자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전략을 펼친다. 제3국에 국제유통이나 통관절차는 2단계인 확대 단계와 비슷하나 최종 상품의 배송목적지로서의 국가가 다르므로 국제 운송 및 국가별 통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케팅 진행단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마케팅 전략 단계별 대상 및 방법



이상으로 전자상거래 마케팅을 위한 전략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케팅 대상으로서 초기 단계는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언어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자상거래 마케팅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확대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산 단계는 확대 단계에서 시행된 해외 마케팅 경험을 통해 제3국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에서 상품에 관한 정보나 국제간 유통 및 통관 등에 관해서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소비자와의 마케팅 관련 의사소통 도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언어적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 5. 나가기

이상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를 활용한 취업 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분야로서 전자상거래 마케팅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에 더하여 그들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다문화 감수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취업 분야의 개발 및 지원은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한계도 많이 드러나고 있음은 본문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정책으로서 먼저,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를 취업지원 대상에 선정할 것과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의 단계적 시행을 제안하였다.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를 취업지원 대상에 선정해야 하는 이유로는 1) 정부에서 유망 기능 직업으로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 이중언어 자원 활용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는 것과, 3) 시간, 공간적 유연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할 수 있으며, 4) 한국 상품의 해외판매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전자상거래 마케팅 전략의 단계적 시행 방안 3단계와 관련하여, 1) 초기 단계는 국내 시장에서 모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행하고, 2) 확대 단계에서는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안과, 3) 확산 단계에서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모국어 언어 사용권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도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언어소통에 관한 부담을 줄이는데 방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를 취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 한다면,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에서 습득한 한국어라는 이중언어 활용을 통해 사회적 활동, 경제적 이익 확보 등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체성 확립 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전자상거래 마케팅 대상을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는 경우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 효과도 있게 된다. 한류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홍보나 수출마케팅 부분에서 중소기업체 참여율이 27.6%에 불과하다는 2019년도 중소기업부 통계를 고려하면, 전자상거래가 이들과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도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20).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류를 통한 경제적 활동을 연계하려는 타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이중언어 활용이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적자원 및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매출액 증대로 이어지고, 매출액 증대가 성과급과 연계되는 경우 임금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마케팅과 관련하여 유연성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이중언어 활용을 통한 취업지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불안을 없애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모국의 언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마케팅 활동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모국 언어권을 대상으로 모국어로 활동하는 데 있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해 한류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여성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에 큰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 사회를 좀 더 안정화시킬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능력 배경 자질을 활용한 취업과 관련한 기초적이면서도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서 향후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마케팅 분야 역시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기 좋은 분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조 모임이나 국제 네트워크와의 효율적 연계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실제 전자상거래 마케팅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에 관한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전자상거래 마케팅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현장의 요구분석 등 현장 기반의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이 된

다면 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 유무를 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교신: 안일선(상명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 수료)(emskorea@naver.com)

Correspondence: Ell Sun Ahn(Doctoral program graduates,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Sangmyung University)(emskorea@naver.com)

2022.01.18 접수 2022.02.03 심사, 2022.05.18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재칠·박영현,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웰니스 테라피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업기  
술교육훈련논문지, 16(1), 23-36.
- 고혜원·김상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  
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 연구보고서, 한국무역  
협회.
- 김윤주, 2017, 이중언어강사의 역할 수행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어문 논집, 79, 139-163.
- 김학민 외, 2019,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교육훈련 전략, 통상정보연구, 21(2), 3-31.
- 대구신문, 2019.04.22, 이중언어 강사 양성, 이주여성 사회 정착 도움,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565>.
- 문화체육관광부 외, 2020, 신항류 진흥정책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
- 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2021.10.25, 다양한 한류 상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즐긴다,  
<https://www.mcst.go.kr>.
- 박신영, 2016, 사회적 자본으로서 취업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조그룹이 가지는 의미 탐색, 열린  
교육연구, 54(4), 111-138.
- 법무부, 2021, 2021년 11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부산일보, 2017.12.05, 2018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월급은 157만원...월13만원 지원 대  
상 300만 명, <https://url.kr/x3t6yc>.
- 신영진·이광석, 2019, 여성결혼이민자지원정책의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범죄정보연구,  
5(2), 63-84.
- 안일선, 2022,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과 취

- 업지원 교육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15(3), 575-602.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여성가족부, 2021,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연차보고서.
- 연합뉴스, 2020.03.19, [2019 혼인이혼] 전체결혼 10건 중 1건은 외국인과 결혼,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9079000002>.
- 영천뉴스24, 2021.07.30,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이중언어교육 실시, <http://www.yc24.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02>.
- 이규용, 2012,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정책방향, 노동리뷰, 89, 74-90.
- 장남혁, 2014,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구호 및 개발 연구. 선교신학, 37, 277-304.
- 장인실, 2011,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교육지원 사례연구. 나라사랑, 120, 113-143.
- 정책뉴스, 2020.08.13, 정부, 14개 신직업 발굴·유망 잠재직업 37개+ $\alpha$  도입 검토, <https://url.kr/bqewzv>.
- 조성호·변수정,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합수 추정, 노동경제논집, 38(2), 59-87.
- 조재형·조병준, 2018, 1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 역량과 생존율의 관계에 관한 산업별 비교탐색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8(6), 49-66.
- 지윤숙,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효과성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취업지원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18세 이상)(국민 일반 부분).
- 통계청보도자료, 2018.08.23,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https://kostat.go.kr>.
- 통계청·법무부보도자료, 2020.12.21,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https://kostat.go.kr>.
- 통계청·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20.09.01,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s://kostat.go.kr>.
- 한겨레, 2021.11.08,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아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8355.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8355.html).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보도자료, 2017.02.22, 2017년 지자체 한국어교육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시행, <https://www.kihf.or.kr>.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0, 2020 외국인 국제 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https://url.kr/tywegr>.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21.11.17,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215만 명, 발표 이래 처음 감소, <https://www.mois.go.kr>.
- 황미혜, 2017, 다문화시대의 결혼여성이민자 이중언어사용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50, 79-96.

# **A Study on Employment Support for Female Married Immigrants - Focusing on Employment in the Field of e-commerce using Bilingualism -**

Ell Sun Ahn\*

**Abstract** Female married immigrants(FMIs) in Korea are in poor economic condi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developed ways to utilize their bilingual ability, to support FMIs in their employment. However, the existing employment support measures for FMIs have produced some results as well as many limitations. To improve this situations, this study draws results and limitations for four professional occupations, while deriving the current growth trend in the e-commerce sector. And this study confirmed that FMIs in international e-commerce have a great potential to be active in the marketing field by utilizing their bilingual ability and human network, and suggested a realization plan.

**Keywords** Female Married Immigrants Social Adjustment, Employment Support Policy, Bilingual Use, e-commerce

---

\*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Doctoral program graduates, emskorea@naver.com